

국어 부사와 수식 대상 — 의미론적 공기현상을 중심으로 —

손 남 익

1. 서론

부사는 일반적으로 서술어를 수식 한정하면서 문장의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 의미론적으로 적절성과 다양성이라는 효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부사의 의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용언의 문법적 관계나 의미 관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사의 의미적 역할이 서술어에 대한 수식 한정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부사는 다른 부사나 형용사,¹⁾ 그리고 문장을 수식 한정하는 예가 있으므로 그 통사론적 특성이나 의미론적인 특성을 간단히 서술할 수는 없다.

부사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부사는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한다고 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논의의 결론이다. 그러나 부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부사는 단순히 용언의 의미만을 수식 한정하는

1) 본고에서는 동사를 상대동사와 동작동사로 분류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형용사는 관형어로 쓰이는 형용사를 말한다.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문장, 형용사와 다른 부사 등을 수식 한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명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도 보인다.²⁾

Quirk et al(1985)에 의하면 “An adverb may function as a modifier of an adjective or of another adverb.”라고 하면서 부사의 주된 기능은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 한정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부사를 의미에 따라 space, time, process, respect, contingency, modality, degree 등으로 하위분류 하였다.³⁾

최현배(1961)에서는 부사를, 역시 그 뜻에 따라, 때 어찌씨(時間副詞), 곳 어찌씨(處所副詞), 모양 어찌씨(狀態副詞), 정도 어찌씨(程度副詞), 말재 어찌씨(話式副詞), 이음 어찌씨(接續副詞)의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⁴⁾

서정수(1994)에서는 부사를 통사론적으로는 자유부사어와 제약부사어로 나누고 통사론적 자유부사어의 하위에 문장 연결 부사어, 시간 자유 부사어, 양태 자유 부사어, 수량 자유 부사어 등이 있다고 하고, 통사론적 제약부사어는 그 하위에 동사 수식 부사어, 존재사 수식 부사어, 형용사/관형사 수식 부사어 등이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부사를 의미론적으로는 공간 부사어, 시간부사어, 과정부사어, 양태부사어, 수량 부사어 및 부정 부사어, 정도 부사어로 나누어 보았다.

부사에 관한 여러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부사는 용언의 의미를

2) 부사가 명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는 ‘바로, 꼭’ 등이 명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가 보인다. 이들 경우는 부사의 예외적 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문법의 바람직한 처리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바로’나 ‘꼭’을 부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3) space는 position, direction, distance로, time은 position, duration, frequency, relationship으로, process는 manner, means, instrument, agentive로, contingency는 cause, reason, purpose, result, condition, concession으로, modality는 emphasis, approximation, restriction으로, degree는 amplification, diminution, measure로 나누었다.

4) 이것이 의미론적인 분류가 아님은 말재 어찌씨와 이음 어찌씨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말재 어찌씨는 문장을 수식 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음 어찌씨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통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수식 한정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사의 수식 대상이 용언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아울러 개별 부사가 수식 한정할 수 있는 용언에 관한 연구도 깊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다.

필자는 부사가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수용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부사의 예외적인 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부사 전체의 의미나 기능을 단지 몇 개의 예외적인 부사의 특성을 가지고 한정할 수 없다는 점과 더 나아가 문법의 보편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어의 품사 설정에 있어서 부사라는 품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⁵⁾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부사인가를 명확히 정의하려고 하면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문장에서 수식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부사이며, 문장에서의 필수 성분이 아닌 것을 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사가 수식 한정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문장을 보았을 때 무엇이 명사이고 무엇이 형용사이고 무엇이 동사인지 또는 무엇이 부사인지는 직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식언 중에 아마 명사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형용사이고 그 이외의 수식언은 부사라는 언어적 직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다.⁶⁾

5) 김규식, 유길준에서 시작된 국어 품사 연구의 초창기부터 부사라는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최현배, 박승빈, 김윤경, 이인모, 이희승, 이승녕, 김민수 등이 용어는 달라도 부사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6) 부사에 관한 정의는 명사를 수식 한정하는 요소는 형용사이고 그 이외의 수식언은 모두 부사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한 명사를 수식 한정하는 몇 개의 부사는 예외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부사의 수식대상

부사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부사가 수식 한정하는 대상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부사의 수식 한정 대상이 용언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가장 벗어나는 경우는 부사가 문장을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일 것이다.⁷⁾ 그러나 부사가 용언을 수식 한정하는 경우 이외에도 우리는 그것이 부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⁸⁾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사가 문장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인데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부사의 기본적인 정의인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한다는 정의에 벗어나 보인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부사는 그 숫자에 있어서도 상당한 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통사·의미론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부사가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한다는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주 간단하게 문장이 용언의 최대투사이므로 용언의 최대투사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는 부사가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아닌 화자의 문장 전체에 대한 의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⁹⁾

부사에 관한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는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이다.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는 정도부사가 형용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는 없

7) 본고에서 말하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 한정하는 형용사를 말하는 것이며, 서술어로서 쓰이는 형용사는 동작동사와 구별하여 상태동사라 부르겠다.

8) 이런 것들을 부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들이 다른 품사에 속할 가능성은 없다.

9) 부사에 관해서는 소위 변형생성문법이나 최소이론 등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깊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는 이들 문법이 문장은 기본 요소에 관한 관심은 많으나 부속 성분에 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이때는 형용사가 수식 한정하는 명사구가 [+상태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도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1a) 매우 예쁜 순이

(1b) 매우 빠른 순이

위의 경우를 보면 '예쁜 순이'는 '순이가 예쁘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때 '매우'는 '예쁘다'라는 [+상태성]을 가진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하여 [+정도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빠른'의 경우도 동일한 경우이다.

2.1. 문장부사

문장부사는 부사 중에서 그 수식 한정 대상이 문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어에 있어서만 있는 부사가 아닌 전통적인 부사 분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수식 한정해 주는 서법부사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부사가 있다.¹⁰⁾

문장부사는 부사의 하위분류로서 그 수식 한정 대상이 다른 부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장부사는 문장 내의 어떤 특정한 요소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아닌 문장 전체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그 의미론적인 특성이다. 문장부사는 문장의 진리치에 관여하지 않고 화자의 문장에 관한 태도를 보인다. 또한 문장부사는 부정의 영역밖에 놓인다는 의미론적인 특성을 가진다.

서법부사는 화자의 문장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가정, 강조, 부연, 의혹, 이유, 전환, 추정, 확신, 부정'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접속부사는 그

10) 접속부사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구접속어 아닌 대부분의 경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부사이다.

의미에 따라 '순접, 역접, 인과, 선택'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서법을 나타내는 부사를 그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가령, 가사, 마기말로, 만약, 만일, 만혹, 설령, 설사, 아마, 아마도, 약혹, 억혹'이 있다. 강조를 나타내는 어휘로는 '결국, 과시, 과연, 그야, 또다시, 또한, 미상불, 미상비, 방가워, 방가워지, 분명히, 사실, 실은, 아무튼, 아무튼지'가 있다. 부연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것도, 게다가, 그러니말리, 대저, 말하자면, 왈, 하긴, 하물며'가 있다. 의혹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설마, 어쩐지, 어쩜'이 있다. 이유를 나타내는 어휘로는 '고로, 어찌하여, 연고로'가 있다. 전환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각설, 각설하고, 그나저나, 근데, 무망중, 이어서, 하기는, 하기가'가 있다. 추정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무릇, 보아하니, 보아한들, 봐하니, 어찌면, 이렇더 이면, 이렇데면, 하마터면, 혹, 혹시, 혹시나, 혹자'가 있다. 확신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분명, 분명코'가 있다. 부정의 의미를 가진 어휘와 호응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결코, 과히, 도무지, 도시, 도저히, 비록, 전혀, 절대로, 통' 등이 있다.

대부분의 서법부사는 문두에 위치하여 화자의 문장에 관한 태도를 보인다. 이들 부사들은 화자의 문장에 관한 태도에 따라 위와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들은 국어의 서법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을 나타내는 서법부사는 국어에서 선행문에서 가정절을 이끌며, 부연을 나타내는 서법부사는 후행문에서 귀결절을 이끈다.¹¹⁾ 또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을 만드는 데서 제약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¹²⁾

11) 서법부사 중에는 단문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절과 종속절이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서법부사가 있다. '가정'을 나타내는 서법부사는 종속절에만 나타나며, '부연'의 의미를 가진 서법부사는 선행문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1) 만일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2) 철수가 학교에 온다, 그것도 빨리 온다.

12) 의혹을 나타내는 서법부사는 감탄문이나 명령문을 만들 수 없다.

(1) *설마 철수가 왔다!

(2) *설마 철수가 와라.

순접 접속부사에 속하는 어휘로는 '그리고, 및' 등이 있다. 역접 접속부사에 속하는 어휘로는 '그러나, 그렇지만, 한데' 등이 있다. 인과 접속부사로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한즉, 그런고로, 따라서' 등이 있다. 선택 접속부사로 '또는, 한편, 혹은' 등이 있다.¹³⁾

순접의 접속부사가 시간부사, 장소부사, 양태부사, 정도부사, 부정부사가 나타날 때의 접속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a) 철수가 어제 왔다, 그리고 철수가 오늘 왔다.
- (2b) 철수가 학교에 갔다, 그리고 철수가 교회에 갔다.
- (2c) 철수가 빨리 왔다, 그리고 순이가 빨리 왔다.
- (2d) 순이가 매우 예쁘다, 그리고 순이가 매우 착하다.
- (2e) *철수가 왔다, 그리고 순이가 안 왔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순접의 접속부사는 시간부사, 장소부사, 양태부사, 정도부사가 나타날 때의 선행문과 후행문의 연결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부정부사가 나타난 문장은 비문으로 보인다.

- (3a) *철수가 어제 왔다, 그러나 순이가 오늘 왔다.
- (3b) *철수가 학교에 갔다, 그러나 순이가 교회에 갔다.
- (3c) *철수가 빨리 왔다, 그러나 순이가 빨리 왔다.
- (3d) *순이가 매우 예쁘다, 그러나 순이가 매우 착하다.
- (3e) *철수가 왔다, 그러나 순이가 안 왔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역접의 접속부사에 의한 시간부사, 장소부사, 양태부사, 정도부사, 부정부사가 선행문과 후행문에 나타날 때 비문으로 보인다.

- (4a) 철수가 어제 왔다, 그러나 순이는 오늘 왔다.

13) 물론 접속부사를 문장부사의 하위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접속사라는 품사를 인정하면 될 것이다.

- (4b) 철수가 학교에 갔다, 그러나 순이는 교회에 갔다.
- (4c) 철수가 빨리 왔다, 그러나 순이는 늦게 왔다.
- (4d) 순이가 매우 예쁘다, 그러나 순이는 약간 착하다.
- (4e) 철수가 왔다, 그러나 순이는 안 왔다.

시간부사와 장소부사의 경우는 시간부사와 장소부사가 다른 경우에는 역접의 접속부사에 의한 연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후행문의 주어에 보조사가 올 때만 정문이다. 양태부사의 경우는 선행문과 후행문에 반대의 의미를 가진 양태부사가 오고 주어에 보조사가 올 때만 정문이다. 정도부사의 경우는 선행문과 후행문에 정도성이 다른 어휘가 오면서 주어에 보조사가 쓰인 경우는 정문이다.

- (5a) 철수가 어제 왔다, 그러므로 순이가 오늘 왔다.
- (5b) 철수가 학교에 갔다, 그러므로 순이가 학교에 갔다.
- (5c) 철수가 빨리 왔다, 그러므로 순이가 빨리 왔다.
- (5d) 철수가 매우 예쁘다, 그러므로 순수는 매우 많이 야단을 맞아야한다.
- (5e) 철수가 왔다, 그러므로 순이가 안 왔다.

인과의 접속부사가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는 선행문과 후행문에 시간부사, 장소부사, 양태부사, 정도부사, 부정부사가 올 때 정문으로 보인다. 인과의 접속부사가 선행문과 후행문을 연결할 때는 다른 부사들은 연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6a) 철수가 어제 왔다, 또는 순이가 어제 왔다.
- (6b) 철수가 학교에 갔다, 또는 순이가 학교에 갔다.
- (6c) 철수가 빨리 왔다, 또는 순이가 빨리 왔다.
- (6d) 순이가 매우 예쁘다, 또는 순이가 매우 착하다.
- (6e) *철수가 왔다, 또는 순이가 안 왔다.

선택의 접속부사가 선행문과 후행문을 연결할 때 시간부사, 장소부사, 양태부사, 정도부사가 올 때는 정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부사가 나타날 때는 비문으로 보인다.¹⁴⁾

2.2. 시간부사, 장소부사

시간부사는 용언의 시간성을 보여주는 부사이며, 장소부사는 용언의 장소성을 보여주는 부사이다. 시간부사와 장소부사는 대부분의 문장에서 출현의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활동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 아래서 행하여진다는 사실과 관련지어진다.

시간부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의 \emptyset 파생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한 시간부사는 그리 많지는 않다. 시간부사는 그 의미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때의 길이를 보이는 시간부사가 있다.¹⁵⁾

장소부사는 대부분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의 \emptyset 파생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장소부사는 그 숫자에 있어서 미미하다. 장소부사는 3차원 공간상의 위치를 보이는 정지성 장소부사와 공간상의 방향의 이동을 보이는 이동성 장소부사가 있다.

시간부사를 분류함에 있어서 커다란 전제는 인간이 시간이라는 체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연속체를 이미 지나간 시간과 당면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또는 시간의 지속을 순간적인 시간과 지속적인 시간으로 나누기도 한다.¹⁶⁾ 시간부사 중 과거시제 시간부사는 주로 용언의 과거형과 공기하며, 현재시제 시간부사는 주로 용언의 현재형과 공기하며, 미래시제 시간부사

- 14) 위의 경우 더욱 정밀한 검증을 하려면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고 부사만 다른 경우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문장에서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고 부사만 다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비문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에 관한 정밀한 연구는 개별 문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15) 종래의 시간부사의 하위로 분류하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양태부사로 분류하겠다.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횟수의 잦고 드뭇의 양태를 보이는 부사이기 때문에 양태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16) 물론 얼마나 되는 시간이 지속이고 얼마나 짧은 시간이 순간인가는 우리들의 인식 체계에 있어서 명확히 나누어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는 용언의 미래형과 공기한다.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시간부사는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에 있어서 제약을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이 시간부사인가의 여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어에 있어서 시제와 상이라는 커다란 범주에서 시제 형태소와 결합하므로 시간부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⁷⁾

- (7a) 철수가 아까 왔다.
- (7b) 철수가 지금 온다.
- (7c) 철수가 이따가 오겠다.
- (7d) 철수가 갑자기 왔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시간부사는 용언의 어미보다 더 명확히 용언의 시간성을 보인다.¹⁸⁾

장소부사는 정지된 상태를 보여주는 정지 장소부사와 장소의 이동을 보여주는 이동 장소부사가 있다.

- (8a) 철수가 가가호호 간다.
- (8b) 순이가 거리거리 간다.

정지 장소부사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성]을 가진 동사의 수식 한정은 불가능하다.

- (9a) 철수가 그리 간다.

17) 시간부사는 용언의 불명확한 시상을 명확히 해준다는 특성이 있다. 국어의 시상을 분류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시상의 존재여부는 시간부사를 통하여 보면 더욱 명확히 규명될 수 있다. 종래의 시상연구에서 단순한 용언의 어미체계에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논란이 있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8) (1) 너 내일 죽었다.

위의 예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일'과 '-었-'의 공기문제이다. 위의 문장의 시제는 '미래'이며 서법은 '확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간부사는 시제의 체제를 분류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9b)순이가 이리 온다.

이동 장소부사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성]을 가진 동사의 수식 한정이 가능하다.

시간부사와 장소부사가 문장 안에서 통사론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은 이들 부사가 [+부사성]과 함께 [+명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시간부사와 장소부사는 동사를 수식 한정하여 [동작성]에 [시간성]과 [공간성]을 보여줄 때는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 시간부사와 장소부사는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하여 [상태성]에 [시간성]과 [공간성]의 의미를 부가해 줄 때는 차이를 보인다. 시간부사는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할 수 있으나 장소부사는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할 수가 없다.

- (10a) 영화가 오늘 예쁘다.
- (10b) 영화가 어제 예뻤다.
- (10c) *영화가 여기 예쁘다
- (10d) *영화가 저기 예쁘다.

위에서 보듯이 대상은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태동사를 시간부사가 수식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장소부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떤 대상의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는 변하지만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특정한 장소는 일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소부사에 의한 상태동사의 수식 한정은 이상해 보인다.²⁰⁾ 이는 통사론적인 제약이 아닌 의미론적인 제약인

19) [+명사성]을 가진 성분이 문장 안에서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국어에서 주어와 목적어, 보어 등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20) 그러나 장소부사에도 보조사가 붙으면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할 수 있다.

- (1) 영화가 저기서는 제일 예쁘다.
- (2) 순희가 학교에서는 착하다.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장소부사에 보조사가 붙어 다른 장소와 다름을 보일 때는 장소부사가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할 수가 있다.

것이다.

2.3. 양태부사, 정도부사

양태부사는 용언을 수식 한정하여 용언의 양상이나 상태를 보이는 부사가 이에 해당한다. 국어의 양태부사는 동작동사 앞에 놓여 동사의 행위 양태를 보이는 부사이다. 양태부사는 [+동작성]을 가진 동작동사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데 쓰인다. 양태부사는 [+상태성]을 가진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하는 데는 쓰이지 못한다. 국어에 있어서 [양태성]과 [상태성]은 어떤 사물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사가 용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용언의 의미를 첨가하여 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자질을 가진 어휘를 수식 한정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 (11a) 철수가 빨리 먹는다.
- (11b) 철수가 천천히 걷는다.
- (11c) 철수가 문제를 간단히 풀었다.

양태부사는 위에서 보듯이 동작동사의 의미를 수식 한정할 수 있다. 양태부사는 동작동사를 수식 한정하여 [+양태성]의 의미를 부가해 준다.

- (12a) *영희가 빨리 예쁘다.
- (12b) *순이가 천천히 작다.
- (12c) *영자가 느리게 기쁘다.

양태부사는 위에서 보듯이 상태동사의 의미를 수식 한정할 수가 없다. 양태부사는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하여 [+양태성]의 의미를 부가해 줄 수가 없다.

정도부사는 용언을 수식 한정하여 용언의 정도성을 보이는 부사이다. 정도부사는 상태동사의 [+상태성]에 [+정도성]의 의미를 부가해 준다.

- (13a) 순이가 매우 예쁘다.
 (13b) 순이가 제일 크다.
 (13c) 순이가 가장 빠르다.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국어의 정도부사는 동작동사를 수식 한정하지는 못한다. 국어의 정도부사는 [+동작성]을 가진 동작동사를 수식 한정하지 못하며, [+상태성]을 가진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한다. 동작동사는 바로 [+정도성]에 의한 수식 한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²¹⁾

- (14a) *철수가 매우 달린다.
 (14b) *철수가 매우 먹는다.
 (14c) *철수가 아주 걷는다.

동작동사의 정도성을 보려면 동작동사 앞에 양태부사가 놓이고 이 양태부사와 합쳐진 동작동사의 [+상태성]의 정도를 보이게 된다.

종래의 국어의 부사가 부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는 정도부사가 양태부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이는 부사가 부사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아닌 양태부사의 수식 한정을 받는 [+상태성]을 가진 용언구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15a) 철수가 매우 빨리 달린다.
 (15b) 철수가 매우 천천히 먹는다.
 (15c) 철수가 아주 느리게 걷는다.

양태부사와 정도부사를 논의함에 있어서 커다란 통사론적인 제약은 이들 부사가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양태부사는 동작동사와 분리가 불가능하고, 정도부사는 상태동사와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는 양

21) “매우 때려라.”, “매우 쳐라.”의 경우는 ‘매우’와 ‘때려라’ 사이에 ‘많이’ 또는 ‘세게’ 등이 생략된 형태로 보인다. ‘쳐라’의 경우도 동일한 경우이다.

태부사와 정도부사가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면서 부사의 고유한 위치인 용언 앞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부사는 시간부사와 장소부사가 [+부사성]에 더하여 [+명사성]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양태부사와 정도부사는 [+부사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한 것이다.

(16a) 철수가 매우 착하다.

(16b) 순이가 빨리 달린다.

위의 예문에서 정도부사와 양태부사는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위의 경우는 가장 단순한 구조이지만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구문요소들이 나타나도 정도부사와 양태부사는 용언과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양태부사를 의미적으로 나누면 '거리, 방향, 빈도, 양태'로 하위 분류되는데 양태의 하위인 양태는 더 자세히 나누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양태부사 중에 거리성을 가진 양태부사가 있다. 이들 양태부사는 장소부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장소부사가 장소의 정지된 상태나 이동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양태부사는 거리감을 보여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7a) 영이가 가까이 있다.

(17b) *영이가 가까호호 있다.

(17c) 철수가 가까이 간다.

(17d) *철수가 가까호호 간다.

거리성 양태부사는 [동작성]을 가진 동작동사나 [존재성]을 가진 어휘와 결합이 가능한 반면 장소부사는 결합에 제약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양태부사 중에 방향성을 가진 양태부사가 있다. 이들 양태부사는 이동성 장소부사가 이동의 방향이나 대상을 보이는데 반하여 용언의 방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 (18a) 철수가 그리 간다.
 (18b) *철수가 가로 간다.
 (18c) 철수가 종이를 가로 자른다.

방향성 양태부사와 장소부사의 다른 점은 장소부사가 [+이동성]을 가진 동사의 수식 한정이가 가능한 반면 방향성 양태부사는 [+이동성]을 가진 동사의 수식 한정이가 불가능하다. 방향성 양태부사는 장소의 이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상을 처리하는 양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²²⁾

양태부사 중에 빈도성을 가진 양태부사가 있다. 빈도성 양태부사는 동작동사를 수식 한정하면서 그 동작의 횟수의 잦음의 양태를 보이는 것이다.

- (19a) 철수가 가끔 온다.
 (19b) 철수가 이따금 온다.

2.4. 상징부사

국어의 상징부사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포함한다. 이는 의미론적으로는 국어에 있어서 동사의 양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양태부사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양태부사가 동작동사의 [+동작성]을 수식 한정하는데 반해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두 경우를 모두 수식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태부사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상징부사 중의 상당수의 부사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동일한 형태를 가진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시각적 감각과 청각적 감각을 동일한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부사와 공간부사에 있어서 동일한 어휘가 존재하는 것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양상이기는 하지만,²³⁾ 이때는 청각어와 시각

22) 방향성 양태부사로는 '가로, 세로, 높이, 가로세로' 등이 있다.

23) 이때는 공간어에서 시간어로 그 의미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구체적인 감

어 중 어느 것이 먼저 생겼는지의 규명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상징부사는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부사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대부분의 부사는 상당수의 용언과 공기가 가능하지만 상징부사는 이와 공기할 수 있는 용언이 몇몇 용언에 한정되거나 특히 한 개의 용언만을 수식 한정하는 경우가 상당수 보인다.

(20a)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

(20b)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다.

(20c) 철수가 상자를 가득가득 채웠다.

상징부사의 경우는 용언과 분리가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상징부사는 용언과의 분리가 가능한데 이는 특정 용언과의 공기하는 상징부사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의미론적으로 그 용언과 공기함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간부사와 장소부사가 [+부사성]과 함께 [+명사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들 상징부사도 [+부사성]과 함께 [+명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것이 상징부사와 양태부사를 구별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2.5. 부정부사

국어의 부정부사는 '아니(안)'과 '못'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들이 국어 문법에서 차지하는 통사·의미론적 기능은 다른 부사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부정이라는 의미론적인 역할을 하는 부사는 이들 둘밖에 없으므로 이들은 독립된 부사의 범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부정부사 '아니(안)'과 '못'은 의미론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전자는 능력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보이고, 후자는 능력의 부족이나 의지의 부정을 나타낸다.

각에서 추상적인 감각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다.

(21a) 철수가 안 갔다.

(21b) 철수가 못 갔다.

위의 경우 ‘안’은 [+자의성]을 가진 부사로 ‘못’은 [-자의성]을 가진 부사로 보인다. 부정부사는 동작동사를 부정하는데 있어서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태동사를 부정하는 부정부사 구문은 이상해 보인다.

(22a) 철수가 밥을 안 먹는다.

(22b) 영이가 교회에 못 간다.

(23a) *순이가 안 착하다.

(23b) *순이가 못 착하다.

동작동사는 [+자의성]을 가질 수 있지만 상태동사는 [-자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부사에 의한 부정을 할 수가 없다.²⁴⁾

3. 결론

부사를 분류함에 있어서 먼저 고려할 것은 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용언을 수식 한정하는가 하는 점이며, 두번째는 부사가 수식 한정할 수 있는 어휘와의 의미론적인 공기관계이다. 본고에서는 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어휘를 수식 한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부사의 숫자는 약 8100여 개에 달하는데 이들 중 문장부사에 속하는 것은 약 125개로 전체의 1.4%에 해당하며, 서법부사가 약 100개로 전체의 1.2%, 접속부사가 약 25개로 전체의 0.2%이다. 문장부사는 화자의 문장에 대한 의도나 태도를 보이는 서법부사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

24) 일부 상태동사의 경우 “영희는 안 예쁘다” 처럼 언중들이 입에 익은말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는 접속부사가 있다.

시간부사는 약 240개로 전체의 2.9%이고, 장소부사는 약 40개로 전체의 0.5%에 해당한다. 이들 부사의 숫자가 이렇게 작은 것은 시간명사와 장소명사에 조사가 붙은 형태로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간부사는 용언의 [시간성]을 보여주며 장소부사는 용언의 [공간성]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시간부사는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할 수 있는데 반해 장소부사는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보인다.

양태부사는 약 3230여 개로 전체의 39.9%이고, 정도부사는 약 50개로 전체의 0.6%이다. 양태부사는 동작동사의 양태를 보여주는 어휘이므로 다양한 정도의 양태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정도의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다. 양태부사는 동작동사를 수식 한정하여 동작동사의 [동작성]에 [상태성]의 의미를 부가해 준다.

정도부사는 50개의 정도부사가 있는데 이들의 정도성을 나열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물론 명백히 정도성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화자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²⁵⁾ 정도부사는 국어의 용언의 다양한 정도성을 보이며, 양태부사와 상징부사를 수식 한정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정도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부사는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하여 상태동사의 [정도성]을 보여주게 된다.

상징부사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의태어는 약 3020개로 전체의 37.3%이고, 의성어는 약 1390여 개로 전체의 17.2%를 차지한다. 이들 상징부사는 전부 4400여 개에 이르러 부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5%에 이른다. 이는 국어에 있어서 상징어의 발달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보인다. 국어에 있어서는 이들 상징어를 통하여 용언의

25) '씩, 씹, 꽤, 아주, 매우'의 등급을 나누려면 아마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성을 보여주게 된다.

상징부사는 의미적으로 공기가 가능한 몇몇 동사와만 공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징부사 대부분의 다른 종류의 부사가 다양한 용언과 공기할 수 있는데 비해 한정적으로 몇몇 동사와 공기할 수 있다는 의미론적인 제약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부사는 [+자의성]을 가진 부정인 '안' 부정과 [-자의성]을 가진 '못' 부정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부정부사는 상태동사의 부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론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서법부사 중에 부정부사와 어울릴 때만 정문이 되는 '결단코, 결코, 과히, 도무지, 도저히'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의미론적으로 부정부사와만 공기가 가능한 서법부사이다.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 참고문헌 □

- 구연미.1994. "우리말 임의 성분 연구."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김민수.1991.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김봉모.1983. "국어 매김말 연구."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김선희.1987. "현대국어의 시간어 연구."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김지홍.1992. "국어 부사형어미 구문과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西江大
 學校 博士學位論文.
 민현식.1991. 「國語의 時相과 時間副詞」, 開文社.
 박경현.1987. 「現代國語의 空間概念語 研究」, 한샘.
 박선자.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서상규.1991.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통어론적 연구." 延世大學
 校 博士學位論文.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박이정.
- 손남익.1995. 「부사와 수식 구조」 「어문논집」(고려대) 34,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 손숙자.1990. 「국어의 부가어 연구」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이광정.1987. 「국어품사분류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한신문화사.
- 이석규.1988. 「현대 국어 정도 어찌씨의 의미 연구」 建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이창용.1992. 「국어 부정문 연구」 世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정교환.1987. 「국어 문장부사의 연구」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조일영.1994. 「국어 양태소의 의미 기능 연구」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최호철.1984. 「現代國語의 象徵語에 對한 研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Benmamoun,E.(1991) "Negation and Verb Movement." *NELS* 21.
- Corum,C.(1974) "Adverbs... Long and Tangled Roots." *CLS* 10.
- Greenbaum,S.(1969) *Studies in English Adverbial usage*. Long mans.
- Grimshaw,J. and Mester,A.(1988) "Light Verbs and θ -Marking." *Linguistic Inquiry* 19-2.
- Heny,W.(1973) *Sentence and Predicate Modifiers in English*, *Syntax and Semantics* 2, Kimbell,J.P.(eds.), New York.
- McCawley,J.(1988) "Adverbial NP's." *Language* 64-3.
- Quirk et al.(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s.
- Stroik,T.(1990) "Adverbs as V-Sisters." *Linguistic Inquiry* 21-4